## 금주의 말씀

벧전 1:20-24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성경에서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한 곳이 많다.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넷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고 했다. 대상 29:15에서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고, 시39:12에는 인생은 손님이라고 말했다. 히11:9에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다.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할까?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이다. 시102:3에서는 인생을 연기라고 했다. 욥7:7에서는 인생을 호흡이라고 했다. 시78:39에서는 인생을 바람이라고 했다. 벧전1:24에서는 인생을 풀이라고 했다. 풀은 봄에 났다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 죽고 만다. 짧은 생명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세계적이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단풍든 산을 보면서 물감을 일부러 뿌린 줄 안다고 한다. 이 가을엔 자주 산과 하늘을 올려다보라. 길 기다가 그냥 서서 중얼거리며…. 가을하늘, 구름이 한 점 없는 그리고 구름이 흘어서 뿌리듯이 움직이는 가을 하늘을 보라. 양떼구름을, 가을 신은 아름다운 물감으로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제가 쓴 시중에 가을 소풍이란 시가 있다. 흥분과 기대로 / 소풍을 떠난다 / 높고 푸른 하늘은 / 전국 가는 길 같고 / 길가에 쑥국 늘어선 나무들 / 빨강, 노랑 색동옷 입고 / 소풍길 마중 나와 / 삥빠레 올리며 환영한다 / 석양빛의 단풍들은 / 금빛으로 물들이고 / 숨 가쁘게 올라가니 / 자석처럼 글이 올린다 / 와! 와! 와! / 감탄하는 봄부림은 / 눈물겹도록 보고픈 님 / 부등켜안고 뛰듯이 /소리 지른다 / 인생은 소풍 가는 것 / 감탄사 연발하며 / 전국까지 가야겠다.

* 가을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계절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가을을 쓸쓸한 계절로 생각한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을을 쓸쓸함을 보는 계절이 아니다. 오히려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는 계절이다. 가을 단풍의 비밀이 있다. 나뭇잎 속 당분 때문이다. 열심히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며 커나가던 식물들이 가을이 다가오면, 더 이상의 생장은 포기하고 겨울을 준비하게 된다. 결국은 잎자루 끝에 떨켜가 생겨 물질이동이 중단되면서 스스로 잎사귀를 죽게 해서 나무를 살린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떨켜'라는 세포를 이용해 잎자루에 코르크 재질의 벽을 만든다. 나뭇가지에서 잎으로 나가는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스스로 '떨켜'를 만들어 잎을 버리는 겨울 준비 과정이다. 단풍이 물드는 것은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가을 단풍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죽을 줄 알아야 한다. 떨켜로 나에게로 집중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이웃으로 향하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름까?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갈2: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가을은 죽음을 또한 준비하는 계절이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벧전 1:24)라고 하였다. '풀이 마르고 떨어진다'고 했다. 가을은 열매를 생각나게 한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초라한가?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면 볼품없는 나무이다.

1)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22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서의 삶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2)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마토보라는 한 부족이 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잡히면 부족장의 명령으로 깊은 강물에 빠뜨린다. 만약 그 살인범이 수영에 능숙해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시 강물에 밀어 넣는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살인범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살인범을 평생 원수로 여기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살인범을 구한다면, 부족장은 살인범의 죽음만은 면케 해주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피해자의 가족은 대부분 강물에서 죽어가는 살인범을 구해낸다고 한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만이 평생 지워 못 할 상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용서의 강'이라고 부른다. (마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계의 존경을 받는 고 넬슨 만델라 前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한다.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5. 권세에 대한 복종(로마서 13:1~6)

우리는 권력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여기 밝혀져 있다. 우리 머리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왕과 그 밑에 따르는 모든 권력자들의 권위와 위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걸 기진 사람들을 들춰 말하지 않고 그 권력의 위치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람들이 제아무리 악하고 시온의 백성의 멸시를 받는 몹쓸 사람들이라도(시15:4), 이들이 가진 공의로운 권세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사도는 앞장에서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도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기르쳤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일반 행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 기회에 그 필요성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내리는 당연한 처벌의 무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어떤 인간의 의지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법률을 만들어 인간의 마음을 묶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복종이 자발적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 교육



홍기범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 종교전쟁(20)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목격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논문 《역사의 종말》을 통하여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세계적 규모의 분쟁은 막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쿠야마는 북한, 니카라과, 케일브리지에-하버드, MIT 등의 대학교를 지칭-공산주의자들이 남아 있으나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사무엘 헌팅턴은 논문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을 통하여 후쿠야마의 논문을 반박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끝난 후에는 문명권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팅턴이 열거하는 문명권은 서구문명, 정교회문명, 이슬람문명, 중화문명(유교문명), 일본문명, 힌두문명, 라틴아메리카문명, 아프리카문명 등이다.

제임스 커스는 멀하기를, 충돌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반대), 문명 간의 충돌도 아니며(헌팅턴의 주장에 대한 반대), 《진짜 충돌》은 미국 내부에서 '서구 전통문명과 다문화주의 · 페미니즘 연합 간에 벌어지는 문화적 충돌이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외부 세력과 충돌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 사이의 충돌이다.

한 나라 안에서 종교, 사상, 가치관,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내부 구성원 사이의 충돌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용주의(봉성애, 젠더 탐른,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이에 반대하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 정치, 교육, 법률, 문화 전반에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정적 차원에서는 부모 세대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과, 미디어 및 교육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에 물든 자녀 세대 사이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며, 형제 사이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은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대립을 단순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말씀)와 세속 세상의 영적 대립으로 설명한다.

① 가정 내에서의 종교전쟁

전통적 진리를 지키려는 이들과 세속적 사상(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수용한 이들 사이의 충돌은 가정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날 가정 내의 영적 가치관적 불화와 충돌을 미리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10:34-36)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② 국가 및 세상 속에서의 거대한 종교전쟁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세력들과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종교전쟁이다. 세상의 세속적 인본주의와 유혹은 하나님의 법과 배치되며,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종교전쟁을 해야 한다.

(에베소서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한일서 2:15-16)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③ 마지막 때의 종교전쟁

진화론과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사상과 학문은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사조는 성경해석에도 영향을 미쳐,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독자가 해석하여 그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는 학설이 나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성경을 판단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이다.

(디모데후서 4:3-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사기 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회건물 매매 · 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란입니다.

### 교회 매매
• 위치 :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 대지 56평
1층 교회 2사택 3층 주택
• 금액 : 6억 3천만원
※성구 일체 포함
※수리 후 건물 까끗
010-8210-5005

### 교회 상가건물 매매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 대지 62평, 건평 131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경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 5억8천(조정 가능) • 교회비품무료로 드립(목제가능)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지시설, 타업종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 교회 임대(반지하)
• 위치 : 서구 내방로 209번길4(상일여고 옆)
• 면적 : 71평
• 금액 : 보증금 5백만 / 월 50만원
※시설 권리금 없음
※비품은 없는 상태임
010-8430-5515

### 교회당 임대
• 위치 : 동구 필문대로 142 /2층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300만/월45만
※비품대 있음 ※시설 완비
※조정가능
010-2738-7277

### 교회당 매매
• 위치 : 광산구 수완동 1243, 1244
• 면적 : 대지 166평
건축면적 204평 3층
• 금액 : 23억
※태양광 6K / 도시가스
※이전으로 인해 매매합니다.
010-6206-7042

### 교회임대
• 위치 : 임방울대로 142-10(삼성빌딩4층)
• 면적 : 86평 / 바로 사역가능
-교회, 유아실, 서재, 교육관, 교제실
• 시설 : 올 리모델링 ※각 방 에어컨 설치
※상가분리사용(타업종) 가능 ※시책 가능
• 금액 : 보3천만/월120만원 or 보5천/월100만원
※월세 조정가능(월 50만)
※개척하실 분, 교회 이전하실 분 환영
010-5514-1158

### 수양관 급매
• 위치 : 장성군 북일면 솔재로
(고창석정온천, 편백숲 5분거리)
• 면적 : 1200평
-교회 3층 -휴게실, 숙소 3층
-단독 2채 -저온창고, 정자
• 금액 : 상담후 결정
010-7924-8291

### 교회임대
• 위치 : 북구 서방로 172번길 10-7, 2층
• 면적 : 20평
• 금액 : 보증금 300만원 / 월 25만원
※주차장 있음
010-6254-8462

### 교회매매
• 위치 : 북구 연양로 7번길 51-31
• 면적 : 대지 132평, 도로 15평
1층-예배당 35평
2층-사택 37.5평
• 금액 : 9억3천만원 (증축가능 / 조정가능)
010-7653-8337

###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신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 대지 121평,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식당,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 금액 : 8억4천만원
010-2679-4934

###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 중 이층 유아실, 방송실
• 금액 : 7억원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 교회 임대
• 위치 : 북구 중흥동 806-13(2층)
안보회관 건너편
• 면적 : 35평
• 금액 :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 교회건물매매
• 위치 :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고사거리
호광주우체국 옆-(전철2호선 일고사거리역 옆)
• 면적 :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1층 주택과 교육관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송실 15평 (십자가 대형 철골 종탑)
• 금액 : 건물 및 교회 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